

# 夏生 天花

《 콘·체르토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참가 신청서 》

“오늘의 HIGHLIGHT는, 바로 여기야!”

『勇往邁進 할 수 있게 나 너의 뒤를 지키리니』

勇往邁進 :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나아감

외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만한 옷을 입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체 불편한 걸 좋아하지 않는 그가 격식을 거부했다. *최대한, 최대한 가벼운 걸로 하자!* 겨우겨우... 타협본 결과다. 레이스도 떼어버리고... 귀걸이도 두고 오고... 떨굴 수 있는 물건은 전부다 떼어버렸다. 그 바람에 누군가는 승마복이라고 해도 믿겠다고 한 마디 했다. 여전히 패션 센스는 구린 편이려나. 하여간 적당히를 모른다니까...

키 / 몸무게  
171.3cm / 59.6kg

\*

**이름**

나츠키 소라카 / 夏生 天花 / Nachuki Soraka

\*

**나이/학년**

19 / 3학년

\*

**성별**

여성

\*

성격

여전하다고 하면 식상할까요. 하지만 그의 웃음이 변할 리가 없으므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최후방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최후의 태양을 가슴에 품은 주작의 흔적을 따라갑시다.

## 「정열의 태양은 절대 기 죽지 않아!!」

절대 기 죽지 않았다. 파워 포지티브 인간이다. **오아아 진정해!** 라고 외쳐봐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 근력과 근성으로 다져진 활기는 연료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는다. 작전 회의는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제멋대로 행동한 뒤에야 아차, 하고 작전이 떠오른다고 하는 게 옳겠다. 즉흥적이고 막무가내인지라 강경하게 말려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수호자이니 어쩌면 예상했을 이야기지만, 이 바보는 그는 정말 사람을 좋아한다. 당신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한 그는 최후의 최후까지도 당신의 편이다. 무엇을 확신하기에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믿고 있을까.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을 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나쁜 소식이라면 그가 오지랖을 많이 부린다는 사실이 되겠다. 단순히 주변인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주변을 넓혀 나간다.. 사람을 발견하면 이것저것 말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외향적 면모가 짙게 관찰된다. 만약 당신이 파워 네거티브 인간이거나, 조용한 걸 좋아하거나, 어두운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한 가지다. **절대 그의 눈에 띄지 마십시오!**

## 「이 사람 볼 수록 웃기네!!」

강한데 약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는 **강강약약**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잘 이겨내도, 고작 여기서? 하는 장면에서 슈르르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특히 공복에 약하다. 한 끼만 굶어도 기어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무대 세트가 넘어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인물이면서.

선한 의지의 **트러블 메이커**도 여전하다. 패기넘치게 **가자!! 해보자!!** 소리를 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매번 머쓱하게 웃어넘겼다. 당연한 소리지만 뒷정리는 확실하게 했다! 당신이 어디선가 우당탕 소리를 듣게 된다면 소동의 주인공은 MADMAGIC의 연습실이거나- 혹은 소라카일 것이다.

\*

기타

1월 30일

매쉬 메리골드 ::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가넷:: 사랑, 진실

노송나무 :: 신의

## LIKE

사람 (물론 당신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명감 뿐만 아니라 애정도 필요한 법이므로.

모험! 어드벤처! 예측불허!

치킨 닭다리

만약 당신이 찹쌀떡이나 날개파라면 그와 맛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DON'T LIKE

비매너적인 행동

기본 테이블 매너는 소라카 본인도 자주 헛갈리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

최선을 다했더라도 이뤄낼 수 없다는 한탄스러움에 잠식되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너무 매운 음식

아무리 배고파도... 위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사절이다.

## 1년 동안...

작년의 졸업식을 기억할 런지 모르겠다. 참석한 전원이 기억할 **'졸업식 소동 사건'**, ...분명 나츠키 소라카가 범인이었다. 선배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며 강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밖으로 열쇠를 던져버려 한바탕 소란이 났었다. 엄청나게 혼나고 한동안 기숙사에 공하게 틀어박혀 있었더라. 올해 졸업식에서는 당사자가 될 텐데 이번에는 또 무슨 행동을 할 지 모르겠다.

봄내음이 날 무렵까지 모든 활동을 정지했다. 사실 오방신이 아니라 사방신이 되어버린 것도 있고.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지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 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평가는 이제 철 좀 들어라, 정도다. 이제 곧 성인인데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격은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사람 자체는 참 좋은데... 뭐,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을까.

\*

퍼스널 컬러

#bf3411

\*  
기숙사

0